

		<h1>보 도 자 료</h1>			
보도일시	11월 20일 15시 이후			총 2쪽	
배포일시	2017. 11. 20.(월)		담당부서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담당과장	해문홍 권용익(044-203-3351) 국토부 유삼술(044-201-3062)		담당자	해문홍 주무관 이상미(02-731-1510) 국토부 사무관 이경수(044-201-3063)	

국토교통부-해외문화홍보원 평창으로 가는 길 전 세계에 알린다
- 국내 상주·방한외신 60여명 대상 기획취재 진행 -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의 공동주관으로 오는 11월 21일 화요일 해외언론을 위한 경강선 KTX 시승 및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 기획취재프로그램이 진행 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준비된 이번 프로그램은 AP,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와 CNN, CCTV등 주요 매체에서 국내로 파견한 상주외신기자 50여명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방한외신 NBC, 유로스포츠 등 10여명이 함께한다.

또한 이번 행사의 주요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이 동행,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외신기자들의 생생한 보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평창올림픽조직위에서는 평창올림픽 이후 운영계획을 설명함으로써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해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획취재 행사를 통해 외신기자들은 평창올림픽 개최지로 가기위한 첫 관문인 인천공항에서부터 평창올림픽 개최지까지 이어지는 교통망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획기적으로 확충된 교통인프라에 대하여 전 세계 생생하게 보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은 서울~강릉 구간을 109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를

설명하고, 오는 2021년 이후 경강선에서 운행 예정인 동력분산식 준고속열차(EMU)에 대한 직접 소개를 통해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되는 교통편의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월 18일 개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12년 연속 공항서비스 1위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활약상을 예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선수단 및 내·외국인 관광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문홍은 코리아넷(www.korea.net) 등 온라인 보유매체를 통해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가에도 평창올림픽을 위한 교통인프라 준비상황을 전하며 평창올림픽 홍보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주무관 이상미(☎02-731-1510),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사무관 이경수(☎044-201-306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